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빛나는 성도의 영성      성경: 역대하 23장 16-21절  
 (Tag:성도,영성,이스라엘역사,여호야다,아달라,요아스,구약성경,역대하)

16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17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18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19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0 백부장들과 준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21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대하23:16-21)

신앙생활하기 쉬운때가 있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신앙생활 하기 쉬운 때이다.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위기를 당하고 있고, 현재 우리 나라의 개신교회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비교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다행스러운 측면이 많다.

다행스럽다는 말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가 가볍다는 말은 아니다. 숙제가 많고 과연 우리가 이 숙제를 잘 풀 수 있을지 매우 난감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궁홀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5천년 역사 속에서 항상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이 되었다. 며칠전 우리는 프리미어12 야구에서 9회초 극적으로 일본과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머쥐었다. 야구 룰을 모르던 사모님도 흥분하였다. (일본은 이 경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려고 무척 노력하였고, 어떻게든 한국을 꺾어보려고 했으나 좌절하고 말았다.)

역시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 10만명당 28명. 2등보다 10명 더 많다. 이는 영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영성은 신앙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부채로 인해서 금융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고, 외모 때문에 상대적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고, 직장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정불화로 고통 당하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죽음의 영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부분도 많지만, 과거보다 더 악화된 부분도 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위기는 단순하기도 하다. 북한발 대형교회 무너뜨리기에서 대형교회는 크게 당하였다. 대형교회가 그동안 방만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위기 앞에 휘청거린 셈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앞 다투어 성장가도를 달리다가 부동산에 너무 큰 투자를 하는 바람에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단이 너무 많이 갈리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여론의 공격에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다. 2000년을 중심으로 종말론이 핵심주제가 되고, 여기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이단들이 활거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급기야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났다. 개신교는 100년된 교리와 규칙을 가지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당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침례교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여전히 800만 성도가 묵묵히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있다. 믿음을 저버리거나 문을

닫는 교회들은 대부분 바른 신앙생활이나 건강한 믿음이나 교리를 담지하지 못한 교회나 목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코 전부는 아니다.)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줄어들지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해서 신앙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혹 자기 홀로 남은 것 같아도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는 홀로 많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다.

엘리야는 1대850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다니엘은 홀로 거대한 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반대로 악한 한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위기로 몰아갔는지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달라의 최후에 관한 말씀이다.

#### <역사 개략>

발단;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 이세벨은(시돈 왕 옛바알의 딸)은 바알을 섬기는 가증하고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양성함-엘리야와 대결함)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은 전쟁을 그치고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정략결혼을 선택함. 아합의 딸 아달라를 며느리로 얻음.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는데 너무 자신의 세력을 크게 하려는 욕심으로 악수를 두어 화근을 만듦.

여호사밧의 장자 여호람은 아달라를 아내로 얻어 아내의 말을 듣고 실정함. 32세에 왕이 되지만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임. 8년간 통치함.(여호람의 통치 기간 중 에돔이 독립하고, 룩나도 독립하게 됨. 또 백성들로 바알을 섬기게 함. 엘리야가 저주함. 전쟁으로 모든 아들이 다 죽음. 오직 막내만 남음. 창자에 병이 들어 죽음. 그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함.)

(여호람이 죽은 다음 상당기간 모호한 시간이 흐른다. 아달라가 모종의 계락을 꾸며서 왕의 죽음을 은폐 했든지, 성경 기자가 나이를 잘못 기재 했을 수 있다.)

여호람의 막내 아하시야는 42(22세의 오기)세에 왕위를 얻지만 역시 엄마 아달라의 꾀에 빠져 악한길로 가다가 1년간만 통치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왕 삼촌(아달라의 남매 요람)에게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살해 당한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달라는 즉시 자신의 손자격인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권을 장악한다.

그러나 아달라의 딸 여호세바(여호사브아)가 젖먹이 1살 조카 요아스를 왕자들이 진멸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6년동안 침실에 숨겨 기른다.

여호세바는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6년간 숨겨서 키우다 7세가 되어서 아달라 몰래 즉위식을 갖는다. 안식일에 군사들이 근무교대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약 600명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 방백들과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한 다음 요아스 즉위식을 갖는다.

아달라는 반역이라고 소리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여호야다가 장악한 상황이라 그녀는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여호야다는 바알신상을 훼파하고 바알제사장을 죽인다. 그리고 나라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130년까지 산다. 요아스는 아버지와 같던 여호야다가 죽자 곧 우상숭배자들의 꾀에 빠져서 다시금 우상숭배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여호야다가 어떻게 130년이나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죽고 난 다음 요아스는 바로 거짓선지자들의 꾀에 빠졌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위해서 여호야다를 오래도록 살게하셨다는 느낌이 든다.

한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다.

한 사람의 악한 심성이 얼마나 나라를 타락하게 하는지도 잘 깨닫게 하는 부분이다.(김일성은 만주에서 마약장사를 하던 마적. 그는 한국에 오면서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함.)

나는 내 가정을 지키며, 내 식구들의 영성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나의 중보기도가 가장 작게는 나의 가정을 지킬 뿐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지키는 영성인 것을 깨닫자.

달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듯이, 성도의 영성도 어지러운 세상에 더욱 빛난다. 내 영성의 빛남을 위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질 필요는 없다. 다만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진정한 성도의 영성이 빛을 발할 뿐이다.

한때는 천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이었다. 그러나 이제 800만 성도가 빛을 발할 때이다. 아직 100만 성도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우선 잠을 자고 있는 성도를 깨울 수 있는 영성을 갖추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